

전희승 선교사님 선교보고

선교 보고 및 인사말

저희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마무리 하고 11 월 내로 부르신 곳 마다가스카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비행편이 없고, 허가도 나지 않아서 돌아갈 길도 없었지만 아직 선교사님의 건강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 쉽게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건강은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지셨지만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기에는 아직도 회복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호산나 학교의 아이들, 그리고 그 부모들, 교사님들 모두 저희 가슴에 남아있고 그 곳에 해야할 많은 사역들을 생각하기에 비행기 편이 허락하는 대로 다시 돌아갈 예정입니다.

중보기도제목

- 선교사님의 건강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 치유하는 은사를 베풀 수 있는 자로 사역할 수 있길
- 호산나 학교의 교사 분들, 영적 제자 조가 마다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주시길
- 기근이 심한 남부지역에 직접 호산나 학교를 세워 그 곳의 어려움도 같이 감당하고 도울 수 있도록
- 남아있는 한국에서의 시간을 은혜 가운데 잘 정리하고 마다로 돌아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길